

#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평가 도구 개발

김대영<sup>1</sup>, 현민철<sup>2</sup>, 김정민<sup>3\*</sup>

<sup>1</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sup>2</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up>3</sup>수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 in General Education for Enriching Convergence Education

Daeyoung Kim<sup>1</sup>, Mincheol Hyun<sup>2</sup>, Jungmin Kim<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The University of Suwon

**요약**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비해 본래의 교육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단계는 바로 현재 각 대학이 편성·운영 중인 교양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이론적으로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를 단편적으로 나열한 것에서 벗어나,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기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평가도구의 배점을 결정하였다. AHP 분석 결과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 중 편성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후순위로는 운영과 평가 영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22개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가중치로 결정된 지표는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 “교양교육과정 목표의 적절성”이 선정되었다.

**주제어** : 대학교육, 교양교육, 교양교육과정 평가, 평가 도구, AHP

**Abstract** General education of university is facing the problem of failing to perform its original educational function compared to major education. The most urgent step in solving this problem lies in the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which is currently designed and implemented by each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the evaluation tool for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This study determined the allotting of evaluation tools by verify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evaluation index through the AHP analysis method, away from the simple list of the evaluation index, which is the limi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The results of AHP showed that the organization of general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while the latter wa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The index determined to be the highest weighting of the total 22 indexes was "appropriateness of course organization" with "appropriateness of general education's purpose" being ranked second.

**Key Words** : Higher Education, General education,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Evaluation tool, AHP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8 scientific promotion program fund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ungmin Kim(jmin6987@hanmail.net)

Received March 12,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6, 2019

Published May 28, 2019

## 1. 서론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되거나 대학 현장에서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형은 다양하다[1]. 이중 교양교육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유형은 교차 이수형이다[1]. 각 대학의 교양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초 학문 영역을 구분되며, 각 영역은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은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교양교육 속에서 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문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을 이수토록 하여 융합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참여를 도모하는 형태의 교양교육과정의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나 이화여대의 호크마 교양대학 등이 그것이다.

확실히 교양영역의 융합교육을 통해 교양교육의 내실화가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영역에서의 융합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ACE나 CK와 같은 정부주도의 대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접근되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융합교육은 단기간의 상과주의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취업을 위한 실용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설픈 제너럴리스트만을 양산할 수도 있고, 방대한 양과 높은 수준의 소수의 우수학생을 위한 교육”[2]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첫째, 교양교육은 학적 보편성이 강한 기초학문 분야가 전담하도록 하고, 둘째, 기초학문분야의 다양한 모든 영역,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각 영역이 두루 참여해야 하며, 셋째, 그 학업량은 적어도 전체 학업량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며, 넷째, 그 교육내용이 학문적 깊이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현실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3].

이를 위한 출발점은 현재 대학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교양교육과정을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자료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대학이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이외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이러한 강의평가 결과도 특정 교과목의 개폐나 강사선정을 위한 질 관리 차원에서 활용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은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평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에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역의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향후 각 대학이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선행연구 분석

교양교육 평가의 대상은 교양교육과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넓게는 대학 교육과정, 좁게는 교양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대학 구성원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까? 아마도 일부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이나 이에 요구되는 전공 혹은 교양 학점으로 대답할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강좌의 실러버스(syllabus)를 교육과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교과목 목록이 아니라 비공식적 경험까지 포함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정도로 다양하게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개념 정의로 인해 대학 교육과정 평가 역시 곤란을 겪고 있다[4].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일일이 분석하기도 불가능[4,5]하기 때문에 이를 몇 가지 준거에 따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후호[6]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① 4개의 존립수준(기관, 지역, 국가, 세계), ② 3개의 구성영역(교육과정 총론, 형식적 교육과정, 준형식적 교육과정), ③ 5개의 변화단계(정책·의사결정, 기준연구개발, 교재연구개발, 운영·관리, 평가·개선)가 교차하여 이루는 총 60개의 셀로 구성된 육각형의 입체모형을 제시하며, 어느 수준, 어느 영역, 어떤 단계에 속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면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허경철[7]도 교육과정을 그 존립수준에 따라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으로, 변화 단계에 따라 계획, 전개, 실천된 교육과정으로, 그 구성요소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교육과정 유형화는 초·중등학교에 적합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수준이 학(부)과나 교양교육전담 기구로 구분되고, 그 구성영역은 총론, 각론, 비교과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분명히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① 교양교육과정의 변화단계를 개발, 운영, 평가로, ② 교양교육과정의 영역을 총론, 각론, 교과외로, ③ 그 수준을 대학전담기구,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김대영 외[5]의 구분(Fig. 1 참조)이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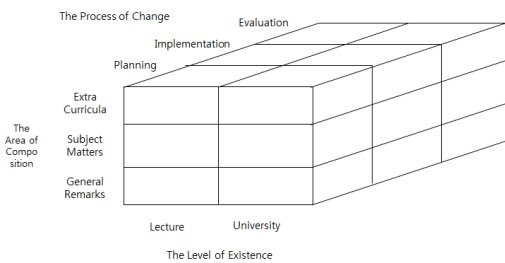


Fig. 1. The figure of general education

즉, 교양교육과정은 총 18개의 셀로 구성되며, 이 18개의 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교양교육과정의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비교 준거로 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 평가 영역을 재구조화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선행연구 중 교양교육과정의 전체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연구는 홍성기 외[13]의 연구와 대학교육협의회 평가인정제[8]가 대표적인 평가를 알 수 있다.

박혜림[9], 교양기초교육원[14]의 교양교육컨설팅 지표의 경우 교과의 영역을 제외하고 교양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효정, 이재경[11]의 연구는 교양교

육과정 계획 영역에, 배상훈 외[10]는 교양교육과정 평가, 배상훈, 박정하[12]의 연구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특히 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영역을 본 연구의 구분에 따라 재조직하여 교양교육과정 평가 영역으로 크게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평가 항목은 ① 교양교육과정 편성에는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교양교육과정 구성 등 2개, ② 교양교육과정 운영에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강의, 학사운영 전담 조직, 시설관리 등 4개, 마지막으로 ③ 교양교육과정 평가영역에는 학생평가, 강의평가, 자체평가 3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9개 항목에 따라 총 22개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교육과정 평가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양교육 평가 지표들을 분석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고 각 영역별 평가항목 리스트를 1차로 개발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교양교육 및 교양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개발된 교양교육 평가 항목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Table 2와 같은 교양교육과정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양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3개 영역, 9개 기준, 22개 항목의 상호 비교용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은 조사는 2017년 11월 13일 ~ 11월 22일 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Table 1. literature reviews of general education.

		KCUE [8]	H. R. Park[9]	S. H. Bae et al.[10]	H. J. Hong & J. K. Lee[11]	S. H. Bae & J. H. Park[12]	S. K. Hong et al.[13]	KNIGE [14]
process of change	planning	○	○	×	○	×	○	○
	implementation	○	○	○	○	○	○	○
	evaluation	○	○	○	×	○	○	○
area of composition	general remarks	○	○	×	×	×	○	○
	subject matters	○	○	○	○	○	○	○
	extra curricula	○	×	×	×	×	○	×
level of existence	lecture	○	○	○	○	○	○	○
	university	○	○	○	○	○	○	○

Table 2. The lists of general education evaluation

Evaluation category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index
1. Organization of General education	1.1 mission and purpose of general education	1.1.1 appropriateness of general education's purpose
		1.1.2 rationality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eneral education's purpose
	1.2 composition of general education	1.2.1 appropriateness of developing process and composition in general education
		1.2.2 diversity of lectures in general education
		1.2.3 appropriateness of course organization
		1.2.4 appropriateness of total number of credits of general education
1.2.5 appropriateness of road map of general education		
2. Implementation of General education	2.1 implementation of general education	2.1.1 balance of crossing completion of general education
		2.1.2 substantiality of BSM program
		2.1.3 appropriateness of lecturer's competency
		2.1.4 improving lecturer's treatment
	2.2 instruction	2.2.1 fidelity of course syllabus
		2.2.2 uniformity of a split-class
		2.2.3 appropriateness of class size
		2.2.4 effort of lecture improvement
	2.3 administration of education matters	2.3.1 appropriateness of implementing administration of education matters
		2.3.2 appropriateness of supports for lecturer
	2.4 facility management	2.4.1 appropriateness of facility management
		3.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3.1.2 fidelity of assessment of student's outcome		
3.2 course evaluation	3.2.1 validity of course evaluation	
	3.3.1 effectiveness of program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 개발 연구를 위해 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총 44명에게 설문지를 요청하였으며, 그 중 20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responders

		N	%
Gender	Male	15	75%
	Female	5	25%
Position	Professor	20	100%
Major	General education	13	65%
	Non-general education	7	35%

설문 분석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로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 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분석 기법을 채택하였다.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영역, 평가기준, 이를 위하여 3개 영역, 9개 준거, 22개 지표의 상호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장과 같다.

#### 4. 연구결과

##### 4.1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 종합평가 영역 결과

Table 4와 같이 교양교육과정 평가도구 개발 종합평가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교양교육과정 편성” 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은 0.675, “교양교육과정 평가”는 0.326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he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categories

	Organiz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sum
Organization	1.000	1.482	3.070	5.552
Implementation	0.675	1.000	2.819	4.494
Evaluation	0.326	0.355	1.000	1.680
sum	2.000	2.837	6.889	11.726

즉, Table 5와 같이 교양교육 평가도구 개발 종합평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는 “교양교육과정 편성” > “교양교육과정 운영” > “교양교육과정 평가”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영역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47.35%로 분석되어 “교양교육과정 운영” 38.32%, “교양교육과정 평가” 14.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교양교육 평가도구 개발 종합평가에서는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weight of evaluation categories

	Organiz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weight	0.4735	0.3832	0.1433

종합 평가 영역에 대한 요인별 쌍대비교 결과가 완전히 일관된 경우(ex. A>D, A>C, B=C, C<D의 경우 A>D>B,C의 결과)에는 C.I.(Consistency Index; 일관성 지수)=0이며, 요인별 쌍대비교 결과가 모순이 많은(일관되지 않은) 경우(ex. A>D, A>C, B=C, C<D의 경우 A>D>B,C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D>B>A>C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는 C.I.의 값이 커진다. 1970년대 초 AHP를 개발한 Thomas Saaty의 제안에 따르면 C.I.가 0.1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0.1보다 큰 경우에는 쌍대비교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C.R.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 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Saaty는 CR≤0.1인 경우에만 합리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0.2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0.2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쌍대비교를 다시 수행하거나 설문지를 수정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합 평가 영역에 대한 C.I.의 값은 0.0053, C.R.의 값은 0.0091으로 임계치인 0.1이하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2 교양교육과정 항목별 평가 결과

먼저 교양교육과정 편성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 구성”은 2.425로 분석되었으며, “교양교육과정 구성”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는 0.41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양교육과정 편성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교양교육과정 구성” >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 편성 항목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교양교육과정 구성”이 70.80%로 분석되어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29.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운영” 영역 1.000을 기준으로 “강의”는 0.996, “학사운영 전담조직”은 0.728, “시설관리”는 0.208로 나타났다. “강의”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1.004, “학사운영 전담조직”은 0.401, “시설관리”는 0.199로 분석되었으며, “학사운영 전담조직”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1.373, “강의”는 2.494, “시설관리”는 0.244로 나타났다. “시설관리”영역 1.000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4.807, “강의”는 5.035, “학사운영 전담조직”은 4.093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강의” > “교육과정 운영” > “학사운영 전담조직” > “시설관리”로 나타났으며, 교양교육과정 운영 항목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강의”가 37.23%로 분석되어 “교육과정 운영” 31.99%, “학사운영 전담조직” 24.32%, “시설관리” 6.4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평가”영역 1.000을 기준으로 “강의평가”는 0.971, “자체평가”는 0.963으로 분석되었다. “강의평가”영역 1.000을 기준으로 “학생평가”는 1.030, “자체평가”는 0.955로 나타났으며, “자체평가”영역 1.000을 기준으로 “학생평가”는 1.038, “강의평가”는 1.047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양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학생평가” > “강의평가” > “자체평가”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학생평가”가 34.07%로 분석되어 “강의평가” 33.52%, “자체평가” 32.41%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교양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평가에서는 “학생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항목 모두에서 C.I.의 값은 0.0000, C.R.의 값은 0.000으로 임계치인 0.1이하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3 교양교육과정 지표별 평가 결과

본 연구의 교양교육 평가도구 개발 영역 및 세부 평가 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1. 교양교육과정 편성 - 1.2 교양교육과정 구성 - 1.2.3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이 0.105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

Table 6. The weight and ranking of evaluation index

Evaluation index	Weight	Ranking
1.1.1 appropriateness of general education's purpose	0.092	2
1.1.2 rationality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eneral education's purpose	0.047	9
1.2.1 appropriateness of developing process and composition in general education	0.085	3
1.2.2 diversity of lectures in general education	0.053	5
1.2.3 appropriateness of course organization	0.105	1
1.2.4 appropriateness of total number of credits of general education	0.052	6
1.2.5 appropriateness of road map of general education	0.041	13
2.1.1 balance of crossing completion of general education	0.028	16
2.1.2 substantiality of BSM program	0.026	17
2.1.3 appropriateness of lecturer's competency	0.044	12
2.1.4 improving lecturer's treatment	0.024	20
2.2.1 fidelity of course syllabus	0.045	11
2.2.2 uniformity of a split-class	0.020	21
2.2.3 appropriateness of class size	0.047	8
2.2.4 effort of lecture improvement	0.030	15
2.3.1 appropriateness of implementing administration of education matters	0.068	4
2.3.2 appropriateness of supports for lecturer	0.026	18
2.4.1 appropriateness of facility management	0.025	19
3.1.1 equitability of student grade	0.018	22
3.1.2 fidelity of assessment of student's outcome	0.031	14
3.2.1 validity of course evaluation	0.048	7
3.3.1 effectiveness of program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0.046	10

1.1 교양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 1.1.1 교양교육과정 목표의 적절성(0.092)은 2순위로 나타났으며, “1. 교양교육과정 편성 - 1.2 교양교육과정 구성 - 1.2.1 교양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구성의 적절성”(0.085)은 3순위, “2. 교양교육과정 운영 - 2.3 학사운영 전담조직 - 2.3.1 학사운영전담조직 운영의 적절성”(0.068)은 4순위, “1. 교양교육과정 편성 - 1.2 교양교육과정 구성 - 1.2.2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다양성”(0.053) 5순위로 교양교육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3. 교양교육과정 평가 - 3.1 학생평가 - 3.1.1 성적사정의 공정성”(0.018)은 22순위, “2. 교양교육과정 운영 - 2.2 강의 - 2.2.2 분반 강좌의 동질성”(0.020)은 21순위, “2. 교양교육과정 운영 - 2.1 교양교육과정 운영 - 2.1.4 전담교강사 처우 개선”(0.024)은 20순위, “2. 교양교육과정 운영 - 2.4 시설관리 - 2.4.1 교육시설관리 적절성”(0.025)은 19순위, “2. 교양교육과정 운영 - 2.3 학사운영 전담조직 - 2.3.2 교수 개발 및 지원의 적절성”(0.026)은 18순위로 교양교육 평가도구 개발 평가지표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역의 융합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대학에서 편성·운영 중인 교양교육과정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를 교양교육과정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도구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현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턴트는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 중 편성의 영역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후순위로는 운영과 평가 영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22개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가중치로 결정된 지표는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 “교양교육과정 목표의 적절성”이 선정되었다.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서는 “학사운영전담조직 운영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으며, 교양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는 “강의평가의 타당성”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즉 22개 평가항목의 합계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모든 지표들이 균등한 배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실제 대학이 교양교육을 평가하여 개선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변화는 실적을 내기 쉬운, 재정적으로 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융합교육이 교양교육에서 구현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교양교육은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복수의 전공을 묶어 교과를 개설하고 있으나 개별 교과의 경우 종래의 학문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수의 학문을 중심으로 통합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제간, 다학문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 융합 소양이 되는 기반 교육인 교양교육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의 규모가 이미 개별 학자의 학문적 역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서 융합교육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쉽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체 학문의 규모가 방대하여 학문의 세계를 개별 학자가 조감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실제 학문의 영역과 영역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학문들을 융합한다 하더라도 전체 학문이 하나의 유기적 틀 안에서 정합적 체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15]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소한 대학수준에서 융합교육 및 교양교육의 목적은 물론 그 구현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의 기반으로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각각의 기준에서 내용적으로 융합교육의 맥락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후에는 그 구체적인 포함 방식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D. Y. Kim(2016). The merit and demerits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194, 64-69.  
 [2] H. Y. Kim(2013). The proposition of the directions about convergence-based courses and basic-convergence subjects for systemed convergenc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2), 11-38.  
 [3] D. H. Son(2009). The basis of integrative education & the role of university colle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3(1), 21-32.  
 [4] L. S. Lattuca & J. S. Stark. (2009). Shaping the college curriculum: Academic plans in context. CA: Jossey-Bass.  
 [5] D. Y. Kim., et al.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Seoul: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6] H. J. Hong.(2012). Easy understanding curriculum. Seoul: Hakjisa.  
 [7] K. C. Huh. (2002). Some thoughts on the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2), 1-26,  
 [8]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2001). Accreditation system for academic evaluation in 2001.  
 [9] H. R. Park.(200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General Curriculum of the 4-Year Colleg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09-132.  
 [10] S. H. Bae et al. (2012).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 for educational achievement in general education. Seoul: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11] H. J. Hong & J. K. Lee.(2015).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a liberal education to enhance creative and integrated thinking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3), 163-192.  
 [12] S. H. Bae & J. H. Park. (2016). The support plan of general education for freshman. Seoul: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13] S. K. Hong, et al.(2016).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general education. Seoul: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14]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17). 2017 general education consulting manual. Seoul: KNIGE.  
 [15]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011). Beyond interdisciplinary boundar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김 대 영(Kim, Dae Young)

[정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13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Ph.D)  
 · 2015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대학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 E-Mail : dykim@jejunu.ac.kr

현 민 철(Hyun, Min Cheol)

[정회원]



- 2010년 2월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12년 8월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2016년 8월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생산(서비스)운영관리 전공(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

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대학교육과정, 대학평가, 운영관리
- E-Mail : jejunuhmc@jejunu.ac.kr

김 정 민(Kim, Jungmin)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평가전공 (박사)
- 2007년 12월 ~ 2017년 5월 : 한국교

육개발원(KEDI) 연구위원

- 2017년 5월 ~ 현재 : 수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프로그램(교육과정)평가, 대학평가
- E-Mail : jmin6987@jhanmail.net